





<당선인>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4·10 총선 대전 동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당선인은 11일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 의원으로서 더 큰 동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중구 지역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당선인은 11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3선 중구청장을 역임한 박 당선인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가서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더 큰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당선인은 "시급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서구갑 주민들께 남깁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모범이 되는, 희망의 정치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서 승리한 박범계 당선인은 11일 "현장 의정과 민생 의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당선은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라면서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당선인>  
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당선인은 11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간 공감대를 이룬 대전교도소 이전,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대전유성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당선인은 11일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심판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준엄한 명령에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황 후보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우주에 별을 쏟아 올리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희망의 별을 쏟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선인>  
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대덕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당선인은 11일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 덕분에 저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며 "오늘의 승리는 박정현의 승리가 아니다. 대덕구민의 승리, 대전시민의 승리,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 박정현은 대덕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 대덕구민의 삶을 지키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대덕구민 곁에 늘 함께 있는 따뜻한 국회의원 되겠다"고 밝히고 "군주민주" 그 뜻을 다시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선인>  
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재선 고지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당선인은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천안 발전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차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천안시민의 승리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제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 기조를 바꿔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국정 기조를 바꿔내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당선인>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69) 당선인은 11일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 첫 도전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 이재관은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  
**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61) 당선인은 11일 "오만하고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릴 것이며,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재선 고지에 오른 이 당선인은 "우선 나에게 인겨주시는 압도적 승리와 뜨거운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당선인 내외가 총령각을 참배하고 있다.

<당선인>  
**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성일종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11일 아침 첫 일정으로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종일·문양목 선생 생가와 순국선열을 모신 총령각·충혼탑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성 당선인은 3선 의원이 된 소감에 대해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께서 집권여당 소속의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중앙무대에서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인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도시'를 반드시 만들 것이며, 향후 4년은 이를 위한 큰 도약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  
**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에서 처음으로 3연속 당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61) 당선인은 11일 "당진항을 충청권 대표 항만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어 당선인은 "3선 중진의 힘으로 활력이 넘치는 당진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당선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고 설욕에 성공했다.  
세 번째 격돌 끝에 승리한 박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당선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선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당선인은 "유권자들께서 내리신 정치의 복원, 민생의 회복을 지상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엄중함에 우리가 또다시 매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국민의 준엄한 말씀을 재차 언급했다.



<당선인>  
**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복기왕(56) 당선인은 11일 "정치 개혁과 대한민국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현 의원에게 불과 수백표 차이로 낙선한 뒤 권도중재 끝에 4년 만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하게 된 복 당선인은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확인했으며,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50) 당선인은 11일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강 당선인은 "저와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분들께,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장동혁(54) 당선인은 11일 "산업기반을 확충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장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당선인>  
**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59) 당선인은 11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 회복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3선 논산시장 출신인 황 당선인은 "논산·계룡·금산 주민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 가까이, 현장에서 뛰고 또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강승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강승규(60) 당선인은 11일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홍성·예산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 당선인은 "원도심 부활을 비롯해 그동안 밀려 있던 여러 가지 숙제를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 지방의회와 함께 힘 있고 빠르게 이뤄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 진료과목

내과 | 외과 | 가정의학과 | 정형외과 | 이비인후과 | 물리치료



## 디딤돌유성의원

디딤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3월 4일 진료개시

유성온천역 4번출구 바로앞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건강한 삶, 함께하는 기쁨**  
**세심한 진료와 정확한 진단**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물리치료실  
운영



X-RAY실  
최신검사장비



수액실  
운영

###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00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2:00 ~ 오후 1:00  
토 요 일: 오전 9:00 ~ 오후 1:30

### 오시는 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84, 레자미3차 205호 (유성온천역4번출구)

문의 **042.721.7505**